

병리적 나르시시즘에 대한 상담자의 자기대상 역할 연구

윤석민
대원대학교

A Study on Counselor's Selfobject Role for Pathological Narcissism

Seok-Min Yoon

Professor, Daewon University College

요약 본 연구는 코헷의 이론을 중심으로 병리적 나르시시즘에 대한 상담자의 자기대상 역할 연구를 하였다. 이론적 이해에서는 나르시시즘과 병리, 자기대상을 논하였다. 나르시시즘과 병리는 응집된 자기의 형성에 실패라 할 수 있다. 초기 유아의 자이는 양육자로부터 적절한 공감과 사랑을 받을 때 통합된 응집적 자기를 형성할 수 있다. 환언하면 자기에적 성격은 취약한 환경에서 공감과 수용을 받지 못하여 무력하고 취약한 자기 또는 분노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자기에적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무력하고 공허한 자기감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거대자기 환상을 유지한다. 한편으로 자기대상이 제공하는 수용과 경탄의 반응을 경험할 때 과대적 자기는 강화되고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다. 유아는 자기대상과의 관계 경험이 손상이 될 경우에 자기는 파편화된 자기(fragmented self)로 남게 된다. 따라서 결과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병리적인 나르시시즘에 대한 상담자의 자기대상 역할은 공감적 자기대상이 되어 내담자로 하여금 건강한 응집적 자기를 형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자기대상이 유아의 욕구에 자상하게 안내하며 이상적 모델로 역할을 할 때 유아는 건강한 이상을 추구하며 초기의 자기에적 평형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주제어: 과대적 자기, 나르시시즘, 자기대상, 응집적 자기, 파편화된 자기, 내적대상

Abstract Based on the Kohut's theory, this study carries out an investigation into the counselor's self object role in pathological narcissism. The theological understandings deal with narcissism, pathology, and self object. Narcissism and pathology can be seen as the failure of the formation of cohesive self. Early infant self, by feeling proper sympathy and love, usually forms integrated cohesive self. In other words, narcissistic personalities, when failing to receive sympathy and accommodation, can result in forming helpless and vulnerable self, which is filled with resentment. In addition, narcissistic characters are afraid of the world and maintain the grandiose image of self to protect themselves from feeling helplessness and emptiness. On the other hand, when they experience accommodation and admiration provided by self object, they can strengthen the image of grandiose self and demonstrate creative abilities as well. An infant remains as a fragmented self, when his or her relationship experience with self object is to be damaged.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conclusions: The counselor's self object role for pathological narcissism should be sympathetic self object so that the counselee will be able to form his or her own healthy cohesive self. Additionally, self object should play a kind role to guide infant desires for ideal models, which eventually help infants to pursue healthy ideas and maintain early states of narcissistic balances.

Key Words: grandiose self, narcissism, self-object, cohesive self, fragmented self, internal objects

Received 12 Oct 2022, Revised 18 Oct 2022

Accepted 25 Oct 2022

Corresponding Author: Seok-Min Yoon
(Daewon University College)

Email: yoonseakmin9@naver.com

ISSN: 2466-1139(Print)

ISSN: 2714-013X(Online)

© Industrial Promotion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본 연구는 코헷의 이론을 기반으로 한다. 이론적 이해에서는 나르시시즘과 병리, 자기대상을 논하고자 한다. 나르시시즘과 병리는 응집된 자기의 형성에 실패라 할 수 있다. 초기 유아의 자아는 양육자로부터 적절한 공감과 사랑을 받을 때 통합된 응집적 자기를 형성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환원하면 자기에적 성격은 취약한 환경에서 공감과 수용을 받지 못하여 무력하고 취약한 자기 또는 분노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자기에적인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무력하고 공허한 자기감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거대자기 환상을 유지한다. 한편으로 자기대상이 제공하는 수용과 경탄의 반응을 경험할 때 과대적 자기는 강화되고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다. 유아는 자기대상과의 관계 경험이 손상이 될 경우에 자기는 파편화된 자기(fragmented self)로 남게 된다. 무엇보다도 자기대상이 유아의 욕구에 자상하게 안내하며 이상적 모델로 역할을 할 때 유아는 건강한 이상을 추구한다. 즉, 유아는 강한 대상과 관계를 통해서 초기의 자기에적 평형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유아가 이상화 과정의 자기대상 경험에 실패하면 유아는 자아 이상을 이룩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유아는 내면의 욕구에 고착이 되면서 자기 대상에게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에 의하여 본 논문은 상담자의 자기대상 역할로 공감적 자기대상이 되어 내담자로 하여금 건강한 응집적 자기를 형성하도록 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나르시시즘과 병리

Psychoanalytic Terms and Concepts에는 나르시시즘에 대하여 Havelock Ellis가 Narcissus 그리이스 신화를 남성 자동 성애적 사례와 관련한 데 기초하여 1899년 Nacken에 의해 창조된 용어다. 그러나 정신분석에서는 그 의미가 확장되어 "인간 심리와 행동에 보다 일반적인 무엇인가의 특정한, 극적인 표현으로 간주된다"라고 설명되어 있다.¹⁾ 즉, 리비도가 자기에게로 집중된 상태를 자기에로 표현할 수 있다.

1) Burness E. Moore & Bernard D. Fine ed., Psychoanalytic Terms and Concepts New Haven and London: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and YaleUniversity press, 1990, P124

자기 심리학의 창시자 코헷은 자기에성 성격장애를 결핍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자기에를 그 자체적으로 정상적 발달과정을 거치는 리비도의 한 형태로서 개념화한 코헷은 아동기에 자기대상으로부터 만성적이고 외상적인 공감 손실을 겪게 되면 자아의 응집성 발달에 있어 심각한 자기에적 손상을 입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코헷에게 있어 자기에성 성격장애의 치료를 위해서는 이러한 발달적으로 결핍되었던 공감을 내담자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즉, 치료자의 공감이 치료기법의 초석이 된다는 것이다.²⁾ 코헷은 자기에성 성격장애는 아동기에 자기대상으로부터 만성적이고 외상적인 공감을 받지 못하면 자아의 응집성 발달에 있어서 자기에적 손상을 입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자기에성 성격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공감을 내담자에게 적절하게 제공해 주어야 한다. 병리의 원인론에 있어서 프로이드와 입장은 다르다. 프로이드는 아이들의 심리 성격 발달의 단계에서 해결하지 못한 리비도의 갈등의 잔재로서 신경증의 원인을 말하는 데 반하여 코헷은 관계의 실패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어린이들은 심리적 성장의 기초로서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대상인 부모로부터 충분한 공감적 사랑과 양육을 제공받아야 하는데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 사랑과 양육의 과정에 결핍을 빚게 되면 소위 심리적 산소의 결핍으로 인한 발달 결핍이 발생하게 되고 따라서 아이들의 자기구조는 취약하고 파편화된 자기구조를 지니게 된다는 것이 코헷의 설명이다.

코헷은 자기에로부터 대상으로 이행한다고 말한 프로이드의 모델은 틀린 것이라고 하였다. 사람은 자라나면서 자기에성 열망을 버리고 오히려 타인들의 요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프로이드적 사고의 출발인 데에 반해서 코헷은 자기에성 욕구는 평생을 통하여 지속되며 애정의 대상이 넓어짐에 따라 병행하여 발달한다고 하였다. 코헷은 자기에적 영역과 대상의 영역 모두에게 발달이 지속된다는 이른바 이중 축 이론을 제안하였다.³⁾ 이처럼 병리의 원인론에 있어서 프로이드는 아이들의 심리-성적 발달의 단계에서 해결하지 못한 리비도의 갈등의 잔재로서 신경증의 원인을 말하였다. 코헷은 관계의 실패를 언급하였다. 코헷은 자기에로부터 대상으로 이행한다고 말한 프로이드의 모델은

2) Glen O. Gabbard, 역동정신의학: DSM-IV판, P.499.

3) Glen O. Gabbard, 역동정신의학: DSM-IV판, P.73.

틀린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코헛은 자기애성 욕구는 평생을 통하여 지속되며, 애정의 대상이 넓어짐에 따라 병행하여 발달한다고 하였다. 병리적 자기애와 건강한 자기애를 어떻게 이해하고 개념화할 것인가에 다양한 임상적 논의에서 Jacoby(1990)는 건강한 자기애와 병리적인 자기애를 방어와 자존감의 개념으로 나누었다. 그의 관점에서 건강한 자기애는 자신에 대한 만족스러운 느낌을 포함하는 반면 병리적 자기애는 평가절하된 자기 가치감으로부터 파생되는 불쾌한 느낌들에 대한 무의식적인 방어를 뿌리를 두고 있다.⁴⁾ 이처럼 병리적 자기애는 불쾌한 감정들에 대한 방어기제가 나타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코헛(1971)의 연구에서는 병리적인 자기애를 응집된 자기의 형성에서의 실패 및 자존감을 유지하는 내적 구조에서의 손상 개념으로 해석하였다. 파편화된 자기(fragmented self)의 상태로 존재하는 초기 유아의 자아는 주 양육자로부터 충분한 공감과 사랑을 받음으로써 차츰 통합된 응집된 자기(cohesive self)로 발전하게 된다. 하지만 양육과정에서 방임이나 학대와 같은 유아가 견딜 수 없는 과도한 좌절이 주어지게 되면 자기애적 구성물의 정상적인 발달에서 중지되어 자기는 응집되지 못한 채 파편화된 자기의 상태로 있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로 병리적인 자기애가 초래하게 된다. 또한 응집된 자기의 형성에 실패한 결과로 자기애적 성향의 사람들은 자존감의 조절 및 유지에 어려움을 느끼며 취약한 자기애에 관한 자각으로부터 파생되는 불안을 경험한다. 응집되고 통합되지 못한 이들의 취약한 자기는 그들로 하여금 성인이 된 이후에도 분리, 상실, 실패, 자존감의 손상 등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기가 파편화되어 산산조각 날 것 같은 위협을 느끼게 한다.⁵⁾ 즉, 병리적인 자기애는 응집된 자기의 형성의 실패라 할 수 있다.

초기 유아의 자아는 양육자로부터 적절한 공감과 사랑을 받을 때 통합된 응집된 자기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Kernberg(1975)에 따르면 생리적이고 기본적인

욕구조차 스스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취약성을 지닌 유아는 양육과정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할 경우 자신의 취약성을 분열의 방어기제를 통하여 무의식으로 억압하는 대신 의식적으로 전능감을 발달시킴으로써 자기애적 성격을 발달시키게 된다. 결과적으로 자기애적인 사람들의 내면에는 양육과정에서 충분히 공감과 수용을 받지 못한 경험으로부터 촉발된 무력하고 취약한 자기 또는 좌절에 관한 분노로 가득 차 있으며 세상도 자신만큼이나 복수심과 증오에 불타는 것처럼 느끼며 두려워한다. 그리고 이러한 위협적인 세계상과 무력하고 공허한 자기감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거대자기 환상을 유지함으로써 그들의 내면인 웅대성과 취약성이라는 두 개의 이질적인 속성이 공존하게 된다.⁶⁾ 환언하면 자기애적 성격은 취약한 환경에서 공감과 수용을 받지 못하여 무력하고 취약한 자기 또는 분노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자기애적인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무력하고 공허한 자기감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거대자기 환상을 유지한다.

2.2 자기대상

코헛(1984)은 자기대상과의 관계의 모체(selfobject cmatrix) 속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적 산물로서의 자기의 개념을 강조하였다. 자기대상이란 자기의 응집력과 생명력 및 조화로우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상을 말한다. 코헛에 의하면 아기의 신체적 생존을 위해 적정량의 산소를 공급하는 환경이 필요하듯이 정신적 생존을 위해서라도 공감적이고 반응적인 인간이라는 환경이 필요하다. 코헛은 자기대상의 부재 속에서 개인의 삶은 존재할 수 없으며 꽃피울 수 없다고 말한다.⁷⁾ 환언하면 자기대상이란 자기 응집력, 생명력, 조화로우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대상을 말한다. 즉, 영유아의 정신적 생존을 위해서 공감적 반응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Kohut(1984)에 의하면 건강한 자기의 발달은 건강한 자기대상의 관계 경험들을 통해 이뤄진다. 생애 초기 유아가 자기대상에게 기대하는 욕구에 대해 적절한 반응으로 잘 기능해 줄 때 유아의 자기는 견고한 응집적 자기

4) Curk, P. 2007. From narcissism to mutual recognition the "mothering" support within the intersubjective dialectic, In A. Gaitanidis & P. Curk (Eds), Narcissism: A Critical Reader PP 71-92. London: Karmac Books Ltd.

5) Muslin, H. L. 1985. Heinz Kohut: Beyond the pleasure principle, contributions to psychoanalysis. Beyond Freud, pp 203-229.

6) Kernberg, O. F. 1975. Borderline conditions and pathological Narcissism New York: Aronson. 경계선 장애와 병리적 나르시시즘. 윤순임 역. 2008. 서울: 학지사

7) Kohut, H. 1984. How does analysis Cure,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cohesive self)로 발달된다. 반면 자기대상 경험이 지속적으로 실패할 때 심리적 산소(psychological oxygen)를 공급받지 못하여 텅 빈 자기(empty self)를 초래하게 한다. 따라서 적절한 자기대상은 건강한 응집적 자기를 구축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자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자기는 초기 유아기뿐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 공감적 자기대상을 필요로 한다. 응집적 자기의 구조가 내면화되었다고 해서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자기대상 경험을 통해서 건강한 자기를 강화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⁸⁾ 환언하면 유아의 생애 초기에 자기대상에게 기대하는 욕구에 적절한 반응으로 기능해 줄 때 유아는 견고한 응집적 자기(cohesive self)를 발달시킨다. 그러나 자기대상으로부터 심리적 산소(psychological oxygen)를 공급받지 못하면 텅 빈 자기(empty self)를 형성한다. 또한 인간은 생애 과정에서 자기대상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코헛은 언급하고 있다.

정신적 산소적인 자기대상 경험은 자기를 이루는 정신적 구조의 중심이 되는 기본단위인 핵자기를 건설하게 된다. 핵자기는 두 개의 축(pole)과 그 두 축을 연결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튼튼하고 응집적인 핵자에 의해 건강한 정서적 자기가 만들어진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쉽사리 무너지거나 망가지지 않는다. 즉, 인생의 어려운 상황적 곤경, 갑작스러운 충격적 사건에도 정서적 자기가 파편화(fragmentation) 되거나 심각하게 약화되거나 부조화(disharmonious)의 경험에 의해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⁹⁾ 즉, 정신적 산소적인 자기대상 경험은 핵자기를 형성한다. 응집적인 핵자에 의해 건강한 정서적 자기가 만들어진 대상은 나이가 들어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3. 나르시시즘에 대한 자기대상 역할

생의 최초의 시기에 자신의 상태는 파편화된 자기 또는 자아의 핵 요소들로서 존재한다. 이 시기에 아기를 현신적으로 돌보아 주는 어머니의 지원을 받아서 아기의 자기는 차츰 응집력 있는 자기로 발달한다. 신생아는 비록 그의 자기가 아직 응집력을 획득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의 공생적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것이 완전하고 자신이 전능하다고 생각하는 자기애적 평정 상태를 경험한다. 그러나 차츰 어머니의 돌봄이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기애적 평정은 깨질 수밖에 없는데 유아는 이 지점에서 자기애적 평정을 유지하기 위한 두 가지 전략을 사용한다. 그중에 먼저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이 이상화된 부모상을 창조하는 것이다. 유아의 자기애적 평정은 바로 이 자기대상에 의존되어 있다. 자기의 탄생은 자기와 자기대상이라는 관계의 모체로부터 시작되는 과정으로서 이 과정에서의 장애는 곧 자기애적 상처로 귀결되며 이는 이후에 정상적인 자기애적 발달과 그에 따른 모든 정신병리의 근원적인 원인이 된다.¹⁰⁾ 다시 언급하면 신생아 시기에 자기의 상태는 파편화된 자기 또는 자아의 핵 요소들로서 존재한다. 그리고 신생아는 어머니와의 공생적 과정을 통해서 완전하고 자신이 전능하다고 생각하는 자기애적 평정 상태를 유지한다. 유아는 이 지점에서 자기애적 평정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과대적이고 과시적인 자기의 발달과 이상화된 부모상을 창조한다. 이 과정에서의 장애는 자기애적 상처로 이어지며 이는 이후에 정상적인 자기애적 발달과 모든 정신병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건강한 자기의 탄생을 위해서 자기대상이 떠맡게 되는 과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첫 번째 과제와 관련하여 아이는 자신이 대단한 존재이며 관심과 인정과 찬사를 받고자 하는 자기애적 욕구를 지니는데 부모는 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제공하고 충분한 찬사를 제공함으로써 아이로 하여금 과대주의와 과시주의의 욕구와 충족되는 경험을 갖게 해야 한다. 이러한 자기애적 욕구가 충족되는 동안 아이의 자기는 힘 있고 가치 있는 존재로 경험되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초기의 응집력이 없던 자기는 차츰 응집력을 지닌 자기로 변형된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의 과대주의와 과시주의가 공감적인 반응을 받지 못하면 자기애적 상처가 생기게 되고 고착이 발생한다.¹¹⁾ 즉, 건강한 자기를 위해서 자기대상의 역할 과제는 첫 번째로 아이는 자신이 대단한 존재이며 관심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기애적 욕구를 가지는데 부모는 긍정적인 반응을 제공하고 찬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8) Kohut, H. 1984. How does analysis Cure,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9) 김병훈, 코헛의 인격발달이론, 목회상담과 교제 미간행물: 강의안(천안: 호서대학교 연합 신학대학원)

10) Kohut, Heinz. The Analysis of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pp. 36-40.

11) Kohut, Heinz. The Analysis of the self, P.114.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아이는 응집력을 지닌 자기로 거듭나게 된다. 이때 공감적인 반응을 받지 못하면 자기에 적 증상이 나타나고 고착과 퇴행이 발생할 수 있다.

두 번째 과제와 관련해서 아이는 부모를 이상화하고 그 이상화된 대상으로부터 보호받고 긍정 받는 경험을 통해서 무력감과 공허감을 느끼지 아니하고 강한 힘을 느낄 수 있게 된다. 그는 이러한 이상적인 자기대상과의 연합이 유지되는 한, 강하고 충분하고 안전함을 느낀다. 그러나 이상화의 시도가 좌절되거나 그러한 기회를 가지지 못한 아이는 결국 자아 이상을 형성하지 못하고 그의 인생을 목적의식 없이 낭비하는 삶을 살게 된다. 계속되는 이상화 자기대상의 욕구에 대한 발달 결핍은 자기애적 균형감의 형성에 심각한 장애를 가져와 자기애적 취약성을 노출하게 되며 이는 한 개인에게 자기 내부의 욕동과 현실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능력의 결핍과 자기 이상의 결핍으로 인한 삶의 목표와 방향감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외부의 대상을 자기 이상의 현실로 이용하려 하는 이상화 대상에 대한 맹목적 충성과 현실으로 이어지게 된다.¹²⁾ 환언하면 두 번째 과제에서는 아이는 부모를 이상화하여 보호받고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무력감과 공허감에서 벗어나서 강한 힘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상화 자기대상의 욕구에 대한 결핍은 자기애적 취약성을 가져와 한 개인에게 내부의 욕동과 현실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삶의 목표와 방향감의 상실로 이어져서 외부의 대상을 자기 이상의 현실로 받아들이게 된다.

4. 치료과정

치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코헛은 세 가지 과정의 치료적 단계를 밝히고 있다. 첫째, 내담자의 어린 시절에 형성된 오염된 관계의 전이들을 치료적 관계 구조 안에서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 단계는 치료자와 내담자는 공감과 신뢰의 관계를 재구축함으로써 내담자의 취약한 자기구조 안에 깃들인 거울 자기의 상처와 이상화 자기의 상처, 그리고 쌍둥이 자기의 상처 등을 재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새로운 관계 맺음의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상담자의 역할이다. 즉, 상담자는 내담자의 주관적 경험의 세계에 민감한 공감적

이해를 바탕으로 내담자로 하여금 충분히 안전하고 이해되는 환경 안에서 자신이 새로운 관계를 경험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관계 맺음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이때의 상담가의 기법은 선부른 해석보다는 공감적 이해와 수용이 우선되어야 한다.¹³⁾ 즉, 이 단계에서 상담자는 공감과 신뢰 관계를 구축하여 내담자의 거울 자기의 상처와 이상화 자기의 상처, 쌍둥이 자기의 상처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둘째, 이러한 공감적 관계를 통한 내담자의 옛 관계의 치료적 활성화의 단계를 형성하면 내담자와 상담자는 보다 깊은 자기와 자기대상의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이때 내담자는 아직 취약한 자기 구조를 지닌 상태이기 때문에 상담자에 대한 신뢰가 깊어 갈수록 상담자에 대한 유아적 욕구의 발현에 의한 과도한 기대를 표출하게 된다. 이때 상담자는 내담자의 유아적 욕구의 발현에 성인의 관계 맺음의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두 번째 치료적 단계의 핵심이 된다. 상담자가 충분히 공감적 이면서 내담자의 유아적 욕구들에 적절한 좌절감을 심어줄 때 내담자는 최적의 좌절감을 체험하게 되며 이 최적의 좌절감이야말로 내담자의 건강한 응집적 자기의 구축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심리 내적 경험이 되는 것이다. 즉, 내담자는 최적의 좌절감 경험을 통해 상담자에 기대했던 유아적 환상적 기대감에서 벗어나 현실을 인식하는 범위 안에서 자신이 경험한 상담자에 대한 실망을 자신의 심리 내부 안의 요소로서 극복해 가려는 건강한 자기의 구축과정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다. 코헛은 이 과정을 변형적 내면화라 불렀고 정신치료의 과정에 핵심적 단계라고 말하고 있다.¹⁴⁾ 환언하면 상담자는 충분히 공감적이면서 내담자의 유아적 요구들에 적절한 좌절감을 심어 줄 때 내담자는 최적의 좌절감을 체험하게 되므로 건강한 응집적 자기가 구축이 이루어지는 심리 내적 경험을 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상담자와 내담자는 강한 저항과 직면케 되는데 내담자는 자신의 유아적 욕구들이 상담가로부터 거부되어가고 좌절되는 경험을 함으로써 자기애적 분노를 나타내는 시기이며 동시에 상담가는 역전이의 하나로서 내담자를 더 이상 공감하며 수용하지 못하고 혼계

12) Kohut, Heinz. The Analysis of the self, PP.48-49.

13) Kohut, Heinz. How Does Analysis cure?,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P.64.

14) Arnold Goldberg, The Evolution of self psychology, PP.2-3

나 교훈 등의 저항으로 맞서거나 혹은 내담자의 요구에 끌려다니며 내담자를 자신의 새로운 심리적 가족의 일원으로 편입하려는 유혹에 마주 서게 되는 것이다.¹⁵⁾ 이 단계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저항을 적절하게 해석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상담자에게서 일어나는 역전을 해석하여 상담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이러한 변형적 내면화 과정을 통한 응집적 자기의 형성단계가 자기 심리학이 지향하는 정신치료의 최종단계가 된다. 즉, 이 단계에서는 자신의 내부 안에서 끊임없이 괴롭혔던 삶의 건조함과 무의미함을 극복하고 삶에 대한 적절한 기쁨과 좌절 희망과 분노 등을 표출할 수 있게 된다.¹⁶⁾ 이러한 변형적 내면과정을 통해서 응집적 자기가 형성된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내담자의 건조함과 무의미함이 극복되고 복합적인 감정들을 표출할 수 있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정상의 발달을 실패한 파편화된 자기에적 자기가 상담가로부터 발달에 필요한 새로운 관계의 자양분을 공급받아 발달시킨 자기 구축의 모습인 것이다. 코헛은 이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역할로서 상담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공감의 치료과정에서 상담가에게는 많은 함정과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다. 즉, 상담의 초기와 과정 중에는 내담자가 상담가를 이상화하는데 따른 불편한 감정과 방어의 유혹이 있고 상담의 종결 부분에서는 이상화 전이가 해소되면서 실망한 내담자가 상담가에게 향하는 분노의 표출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이의 활성화는 한 개인의 정신치료와 그 과정을 통한 건강한 응집적 자기의 구축이라는 목표에 필수적인 과정이다. 상담자는 끈질기게 반복되는 내담자의 거울 반영의 욕구와 이상화의 대상이 되어 주길 원하는 욕구 앞에 지루함과 짜증을 느끼지 않는 공감적 자기대상이 되어야 하며 내담자의 파편화된 자기에서 분출되는 욕구를 적절히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통제력을 지녀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담자의 역할을 결코 완벽한 자기대상으로 서의 역할을 규정하지는 않는다. 위니컷의 말처럼 충분히 좋은 자기대상이면 족한 것이다. 내담자로 하여금 변형적 내면화 과정을 통해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응집적 자기를 구축하게 출발시키는 촉매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¹⁷⁾

15) Arnold Goldberg, The Evolution of self psychology, 982-110.
 16) Arnold Goldberg, The Evolution of self psychology, PP.2-3.
 17) Arnold Goldberg, The Evolution of self psychology, PP.325-328.

이처럼 상담가의 역할은 공감적 자기대상이 되어 내담자로 하여금 건강한 응집적 자기를 형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유아의 자기애적 에너지가 자기대상이 제공하는 수용과 경탄의 반응을 경험할 때 유아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 경험의 구조가 몸 안의 이미지로서 각인된다. 이때 자기의 주요 구성물 중 하나인 과대적 자기(grandiose self)를 건강하게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과대적 자기가 건강하게 충족될 때 자신에 대한 온전함과 행복을 느끼게 되며 자아 기능이 강화되고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¹⁸⁾ 환원하면 과대적 자기는 자기대상이 제공하는 수용과 경탄의 반응을 경험할 때 자기 기능이 강화되고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자기대상과의 관계의 경험이 심각하게 손상될 경우 과대적 자기는 현실적인 목표에 통합되지 못하고 과대자기의 파생물들은 부정(수직분열)되거나 억압(수평분열)되어 원초적 형태로 고착된다. 따라서 자기의 기반이 되는 한 축인 과대적 자기의 축을 구축하지 못하게 되면서 파편화된 자기(fragmented self)로 남게 된다. 이로 인해 스스로에 대한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인 과대평가 혹은 꺾어진 야망에 대한 자기애적 수치심과 열등감 사이를 헤매게 되는 자기에적 성향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¹⁹⁾ 즉, 자기대상과의 관계 경험이 손상될 경우 자기는 파편화된 자기(fragmented self)로 남게 된다.

코헛은 두 번째의 자기 축을 가치와 이상의 축(the pole of values and ideals)으로 명명하였다. 강하고 힘 있는 대상과 융합함으로써 초기의 자기에적 평형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유아의 욕구는 이상화된 부모 원상(idealized parent-*imago*)을 구축하여 그곳에 자기에를 집중시킨다. 이상화는 유아가 자신의 부모를 힘 있고 강한 존재로 받아들이며 전능감과 완벽함을 부모에게 투사함으로써 형성된다.²⁰⁾ 이처럼 자기대상이 유아의 욕구에 자상하게 안내하며 이상적 모델로 역할을 할 때 유아는 건강한 이상을 추구한다. 즉, 유아는 강한 대상과 관계를 통해서 초기의 자기에적 평형상태를 유지할 수

18) siegel, A.M 1996. Heinz Kohut and the psychology of the self. 권명수 역 2002. 하인즈 코헛과 자기 심리학. 서울 한국심리치료 연구소.
 19) Kohut, H. 1971. The analysis of the self madison: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20) siegel, A.M 1996. Heinz Kohut and the psychology of the self. 권명수 역 2002. 하인즈 코헛과 자기 심리학. 서울 한국심리치료 연구소.

있다. 또한 유아의 발달과정에서 이상화하려는 시도가 좌절되거나 기회조차 얻지 못하여 이상화 과정의 자기대상 경험에 실패하면 유아는 자아 이상을 형성하지 못하게 된다. 통합되지 못한 이상화된 대상은 유아적인 욕구에 집착하는 고착된 형태로 남게 되면서 원초적인 자기대상에게 의존하게 된다.²¹⁾ 환언하면 유아가 이상화 과정의 자기대상 경험에 실패하면 유아는 자아 이상을 이룩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유아는 내면의 욕구에 고착이 되면서 자기 대상에게 의존하게 된다.

코헛(1984)이 제시하는 세 번째의 자기 측은 쌍둥이 자기대상(twinship selfobject)에 대한 욕구이다. 이 욕구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같다는 느낌을 주는 자기대상의 경험이다. 이는 프로이드의 전통적 심리-성적 발달단계에서 말하는 초기 잠복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코헛은 오이디푸스기 이후에 이 욕구가 본격적으로 발현된다고 설명한다. 성장 과정에서 유아는 부모의 행동을 동일하게 흉내 내고자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아는 자신의 자기를 강화시켜 나아가게 된다. 이러한 쌍둥이 자기대상 욕구가 자기대상의 적절한 반응을 경험할 때 세상에 적응하는 자신의 타고난 재능과 기술을 펼쳐 나아갈 수 있게 된다.²²⁾ 즉, 이러한 욕구는 자기대상은 같다는 느낌을 주는 자기대상의 경험이라 할 수 있다. 유아는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현실에 적응해 나아갈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코헛의 이론을 중심으로 병리적 나르시시즘에 대한 상담자의 자기대상 역할을 문헌연구를 통하여 제시하였다. 목적에 따라 본론에서는 이론적 이해로 나르시시즘과 병리를 논의하였다. 코헛은 자기에성 성격장애는 아동기에 자기대상으로부터 만성적이고 외상적인 공감을 받지 못하면 자아의 응집성 발달에 있어서 자기에적 손상을 입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자기에성 성격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공감을 내담자에게 적절하게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병리적 자기에에는 불쾌한 감정들에 대한 방어기제가 나타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결국에 병리적인 자기에는 응집된

자기의 형성에 실패라 할 수 있다. 초기 유아의 자아는 양육자로부터 적절한 공감과 사랑을 받을 때 통합되고 응집된 자기를 형성한다. 그리고 자기대상을 언급하면 자기대상이란 자기 응집력, 생명력, 조화로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대상을 말한다. 즉, 영유아의 정신적 생존을 위해서 공감적 반응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유아의 생애 초기의 자기대상에게 기대하는 욕구에 적절한 반응으로 기능해 줄 때 유아는 견고한 응집적 자기(cohesive self)를 발달시킨다. 그러나 자기대상으로부터 심리적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면 텅 빈 자기(empty self)를 형성한다. 또한 인간은 생애 과정에서 자기대상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코헛은 언급하고 있다.

한편으로 자기대상이 유아의 욕구에 자상하게 안내하며 이상적 모델로 역할을 할 때 유아는 건강한 이상을 추구한다. 즉, 유아는 강한 대상과 관계를 통해서 초기의 자기에적 평형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치료과정에서는 상담자는 공감과 신뢰 관계를 구축하여 내담자의 거울 자기의 상처와 이상화 자기의 상처, 쌍둥이 자기의 상처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또한 상담자는 충분히 공감적이면서 내담자의 유아적 요구들에 적절한 좌절감을 심어 줄 때 내담자는 최적의 좌절감을 체험하게 되므로 건강한 응집적 자기가 구축이 이루어지는 심리 내적 경험을 하게 된다. 따라서 결과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병리적 나르시시즘에 대한 상담자의 자기대상 역할은 공감적인 자기대상이 되어 내담자로 하여금 건강한 응집적 자기를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자기대상이 유아의 욕구에 자상하게 안내하며 이상적 모델로 역할을 할 때 유아는 건강한 이상을 추구하며 초기의 자기에적 평형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References

- [1] Burness E. Moore & Bernard D. Fine ed., Psychoanalytic Terms and Concepts New Haven and London: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and Yale University press, 1990, p124. Concepts New Haven and London: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and Yale University press, 1990, p124.

21) Clair, M. St. 2004. object relations and self psychology. 안석모 역 2016. 대상관계 이론과 자기심리학 서울: Cengage Learning.
22) 최영민 2011, 쉽게 쓴 자기 심리학. 서울: 학지사

- [2] Glen O. Gabbard, 『역동정신의학: DSM-IV판』, p.499.
- [3] Gren O, Grbbard, 『역동정신의학: DSM-IV판』, p.73.
- [4] Curk, P. 2007 From narcissism to mutual recognition the “mothering”s support within the intersubjective dialectic, In A. Gaitanidis & P. Curk (Eds), Narcissism:A Critical Reader PP. 71-92. London: Karmac Books Ltd.
- [5] Muslin, H. L. 1985. Heinz Kohut: Beyond the pleasure principle, contributions to psychoanalysis. Beyond Freud, pp.203-229.
- [6] Kernberg, O. F. 1975. Borderline conditions and pathological Narcissism New York: Aronson. 경계선 장애와 병리적 나르시시즘. 윤순임 역. 2008. 서울: 학지사
- [7-8] Kohut, H. 1984. How does analysis Cure,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
- [9] 김병훈, 코헛의 인격발달이론, 목회상담과 교제 미간행물: 강의안(천안: 호서대학교 연합 신학대학원)
- [10] Kohut, Heinz.(1971). The Analysis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pp. 36-40.
- [11] Kohut, Heinz. (1971). The Analysis of the self, p.114.
- [12] Kohut, Heinz. (1971). The Analysis of the self, pp.48-49.
- [13] Kohut, Heinz. (1984). How Does Analysis cure?,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64.
- [14] Arnold Goldberg, The Evolution of self sychology, pp.2-3
- [15] Arnold Goldberg, The Evolution of self sychology, pp.98-110.
- [16] Arnold Goldberg, The Evolution of self sychology, pp.2-3.
- [17] Arnold Goldberg, The Evolution of self sychology, pp.325-328.
- [18] siegel, A. M. 1996. Heinz Kohut and the sychology of the self. 권명수 역 2002. 하인즈 코헛과 자기심리학. 서울 한국심리치료 연구소.
- [19] Kohut, H. 1971. The analysis of the self madison: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20] siegel, A.M 1996. Heinz Kohut and the psychology of the self. 권명수 역 2002. 하인즈 코헛과 자기심리학. 서울 한국심리치료 연구소.
- [21] Clair, M. St. 2004. object relations and self psychology. 안석모 역 2016. 대상관계 이론과 자기심리학 서울: Cengage Learning.
- [22] 최영민 2011, 쉽게 쓴 자기 심리학. 서울: 학지사

윤 석 민 (Yoon, Seok-Min)



- 2006년 03월-2022년 10월 현재: 대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2002년 03월-2005년 12월: 백석대학교 외래교수
- 2001년 03월-2010년 8월: 백석대학교 상담학박사
- 1996년 02월-1998년 02월: 서울신학대학교 신학석사
- 1990년 03월-1992년 02월: 한남대학교 원(석사) 교육학과
- 1992년 03월-1994년 02월: 한남대학교(편입) 졸업 기독교학과
- 1983년 03월-1990년 02월: 성결대 영어 영문학과
- 관심분야: 심리상담, 놀이치료, 미술치료, 독서치료 등
- E-Mail : yoonseakmin9@naver.com